

부로일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임

—부로일터 업자들 육제회 결성—

최근 극심한 불행 을 겪고 있는 부로일터 업체는 이번 불행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 틀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대한양계협회에 모여 육제회를 조직하였다.

지난 추석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육제가격을 1,000수에 10여만원씩의 적자를 부로일터업자들에게 안겨주어 이대로 가면 전양계업계가 도산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해있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업자 스스로 개척해보자는 뜻에서 대한 양계협회는 우선 서울 근교의 육제업자들을 소집하여 육제회 중앙회를 결성하고 점차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차모임 11월 5일

<참석자>

- 최홍균<금곡지구>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지금 2리
- 이철순<망우지구>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436
- 이두환< " >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118호
- 박명현<의정부지구> 서울 도봉구 미아동 632-81호
- 양기천<인천지구> 경기 인천시 남구 구월동 3
- 이규상<오류지구> 유일농원
- 최병관<영등포지구>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육길리 127
- 김재학<안양지구> 경기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
- 최병길<안양지구> 경기 안양시 안양 1동 640번지
- 이철우<수원지구> 경기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 김동환< " > " " "

1차 모임을 가진 육제회는 정보교환과 중간상인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직매제도를 강구하기로 하고, 11월 10일 2차 모임을 가져 각 지역별로 회원을 확대하며,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지역별 가격과 현재 보유 수수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는 한편 11월 19일 3차 모임에서는 영등포지구에 직매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최병관씨로 하여금 직매소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일임하기로 하였다.

한편 육제회는 조직은 더욱 강화하여 육제회업자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기 위하여 부로일터 사양가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원하고 있다. 육제회의 활동 상황을 알아본다.

1. 매주 월요일 양계협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육제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한 양계협회에서 육제회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참석범위를 점점 넓힌다.

2. 정보교환사업을 강화한다.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지역의 육제시세, 보유수수, 중간상과의 거래관계, 사료문제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계협회에 통보하는 한편 회원들의 문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소를 개설하고 점차로 확대한다.

대한양계협회 22-3571, 3572

영등포지구 연락 62-2311, 4611 교환 558

오류동 8-2387

청량리 96-8780

3. 사양현황조사서 배포

정확한 사양수수를 파악하여 업자들 스스로 조절 사육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양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양계협회로 집합한다.

4. 육제회 직매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중간상인의 횡포를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직매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1차로 영등포지구에 개설하여 인천, 영등포, 수원지구의 육제업자는 우선적으로 직매점에 닭을 공급하며 직매점을 항상 중간상인에게 넘기는 값보다 유리한 가격을 보장해 준다.

11월 26일 제 4차 모임을 갖고 1차로 육제회 직매점을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신림시장내에 개설하여 육제회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 하였다.

육제회 직매점 전화 62-2311, 4611 교환 558

이 육제회 조직이 아직은 체제가 안잡히고 참석범위가 좁지만 앞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서 불황타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부로일터 사양가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